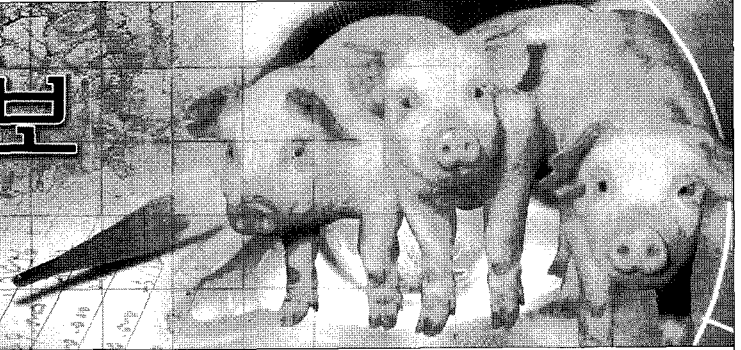


축산정보



잔류물질 위반농가 규제 강화

-식육종 잔류물질 검사요령 3월 2일 개정 고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종 잔류물질 검사요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잔류위반 농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일 식육종 잔류물질 검사요령에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추가시켜 출하 전 생체잔류 검사 항목을 항생물질 및 설파제 등으로 하고, 규제검사 항목에 엔로플록사신을 추가시키도록 개정 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4page 참조>

돼지 사육단계 HACCP '06년 도입 계획

-농림부,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일환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사육농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점관리하는 사육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06년 돼지농장부터 시작해 젓소

('07년), 한육우('08년), 산란계('09년), 육계농장('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한편으로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우선 금년 중으로 돼지 사육단계에 대한 HACCP 운용지침 및 농가 적용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축종별 HACCP 지침 등을 제정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출하 전 후기 사료 급여,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강화 등의 동물약품 안전관리와 사료공장 HACCP 도입,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수 감축(53종 25종) 등 사료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절기 돼지설사병에 주의해야"

-검역원, 3월 18일 PED 발생주의보 발령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18일 환절기 돼지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역원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지역의 돼지 설사병 발생이 양돈농가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확산차단 등 예방치원의

방역관리가 요구되어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은 추운 겨울철과 봄 사이 즉,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돼지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급성 설사병으로서 특히, 포유중인 새끼돼지에 감염되면 폐사 등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해양배출 기준 한층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배출 등을 다룬 국제협약인 '72년 단협약과 '96의정서가 1~3년 이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어 해양배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업계 및 환경단체,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하수오니, 축산폐수 및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 의존도가 급증함에 따라 배출해역의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수분함량이 95% 이상이면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축산분뇨도, 해양배출 가능물질 중 분류상 하수오니의 포괄적 해석으로 포함되어 시안화합물, 크롬, 아연, 구리 등 25가지를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로 유념해야 할 것은 구리와 아연이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지난 2월말 해수부에 “농가지원 및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배출기준법이 강화된다면 축산분뇨를 고액분리 처리 후 배출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전국 각 지부(회)를 통해 양돈농가가 가능한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해 배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고액분리 배출 지원을 위해 올해 가축분뇨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액비생산 및 해양배출, 공공처리장 배출 양돈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각종 고액분리기 제품의 공급 가열로 양돈농가의 고액분리기 설치 피해의 우려도 낳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방식별 장단점, 배출 SS농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 고액분리기를 선택해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돈장 방역관리 대폭 강화

-질병 검사 '분양 전 1회 이상'으로 변경

중돈장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

다.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돈장 방역관리요령(제5조 제2호중)중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모돈 등은 가축전염병(구제역, 돈열, 오제스키)에 대한 검사주기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분양 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농림부는 중돈장 방역관리요령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21일까지 받고, 이를 수렴해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작년 돼지 도축두수 4.4% 감소

2004년 돼지 도축두수는 1천462만246두로 지난해 1천528만6천616두보다 4.4% 감소했다.

농림부가 집계한 '04년 12월 도축실적 집계결과 12월 돼지 도축두수는 130만4천918두로 전월 134만7천744두보다 전월대비 3.2% 감소, 전년동월 138만2천494두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암컷은 66만4천319두로 전월대비 2.0%,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했으며, 수컷 또한 64만599두로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6.7% 각각 감소했다.

한편 2004년 10~12월 도축두수는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성장이 지체되었던 비육돈이 10월, 11월에 출하되면서 3/4분기보다 15.4% 증가했지만 사육두수가 2003년보다 감소해 2003년 4/4분기보다는 2.9% 감소했다.

돈육 전 후지 부위 재고 감소 지속

-12월 현재 전월비 전지 7.5%, 후지 7.4% 감소

돈육 전지 및 후지, 안심 부위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 후지 등 부위에 대한 소비자의 인기가 다소 변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돈육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12월 조사재고량은 383톤, 추정량 1천386톤으로 조사재고량이 전월대비 7.5% 감소했으며 추정량도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후지 부위도 조사재고량이 875톤으로 전월대비 7.4% 감소했으며, 안심은 98톤으로 전월대비 5.9% 감소했다. 한편 부위별 재고량은 전월대비 등심(785톤)이 54.4%, 삼겹살(2천247톤) 38.4%, 목등심(1천83톤) 55.4%, 갈비(832톤) 29.6% 각각 증가했으며, 총 재고량은 6천704톤으로 전월대비 25.9% 증가했다.

설 원산지표시 위반 돼지고기 최다

지난 1월 20일~2월 7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설 전후 기간동안 단속원 3천431명을 동원해 대형유통업체, 농축산물 도매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7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는 488개(전년대비 33%),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482개(전년대비 76%)로 전년보다 51%나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특히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꾀갓, 쇠고기, 당근, 참깨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 명예감시원을 대폭 확대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유통신고(☎1588-8112)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발포상금을 건당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처리 가장 효율적인 방안 찾는다”

—농림부, 가축분뇨처리공법 관련 협의

농림부는 가축분뇨 처리 공법별 시설비 및 처리비용, 장단점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중이다. 따라서 추진기관에 농림부를 총괄 기관으로 정하고 농진청 축산연구소, 농협 축산컨설팅부, 관련 협회 등을 조사 분석팀으로 설정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돼지의 경우에는 농림부 총괄 아래 농진청 축산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조사 분석하고 우리 협회와 도드람양돈조합이 조사에 협조키로 했다. 특히 퇴비화, 액비화, 퇴비+액비, 퇴비+정화 등 축종별 농가의 처리모형별로 2~3개 농가를 분류

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역별 해양배출 비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0일 농림부 지하 사회의실에서 농진청 축산연구소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우리 협회 도드람양돈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가축분뇨 처리형태별 처리공법, 설비비, 처리비용 조사 분석 방법, 추진일정 등에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했다.

한 아세안 FTA, 돈육 수출 가능성 제기

2월 17일(목)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통상정책관, 통상협력과, 생산자 단체 및 농민단체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간담회’가 열렸다.

현재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국과 아세안 FTA 농업분야 농산물 교역은 규모가 2003년 기준 1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의 아세안 전체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축산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산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가 해당되며, 2004년도에 국내 돼지고기 수출은 대부분 일본으로 789톤, 필리핀으로 1,138톤, 몽골로 6톤 등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가 돼지고기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한 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의 돼지고기 등심과 후지

등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으로의 양돈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베트남으로의 국내 종돈 수출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 ‘올바르게’

농림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남은 음식물이 과다하게 사료제조시설로 유입될 경우 비정상적인 처리로 인한 사료품질 저하와 질병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각 시 도지사에게 관내 남은 음식물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운영실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을 직접 수집해 사료로 급여하는 축산농가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가열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 홍보하는 등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중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와 관련 남은음식물사료 가열은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하며, 돼지전용사료만 제조하는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축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포상’

구제역, 돈열, 소해면상뇌증 등 발생 신고자 및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이 주어진다.

농림부는 악성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와 가축방역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당해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와 돈열, 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가축사육시설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검역원, 제1회 전국 방역기술 전진대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25일(금) '제1회 전국 방역기술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로드맵 활용을 통한 가축방역 추진사례 등 실질적인 방역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역기술 전진대회에서는 전국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시군 관계관 및 방역본부, 축산관련 단체 등 252명이 참석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14개의 과제 발표를 소개받았다.

각 시도에서는 돼지 오제스키병, 조류인플루엔자, 소부루세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성공적인 근절대책을 설명하고, 로드맵 활용을 통한 가축방역 및 효율적인 살처분 방안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역기술을 소개했다.

검역원은 이번 대회가 일선 지자체 방역기관의 방역기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해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의 방역능력을 향상하고 효율

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사라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면밀 분석 필요”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발표회 개최

지난 2월 28일(월)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발표회가 열려 농림부 김경규 축산정책과장과 김권영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허덕 팀장, 축종별 협회 담당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축산직불제와 관련한 시범사업 실태 등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친환경축산직불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후 직불제 직접지불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양돈분야의 적정직불금액은 두당 4만8천690원 정도로 추산했다. 또한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미국, 일본 등 친환경 축산과 관련한 다양한 선진국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한편 농림부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앞으로 2~3개월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김강희 팀장은 "친환경축산과 유기축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축산 관련 기관에 구제역 방역 조치 사항 시달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등이 함께 보다 강도 높게 구제역 방역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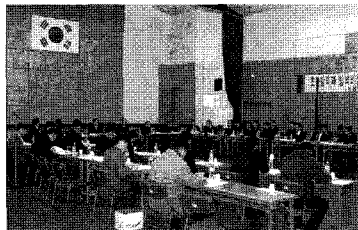
이에 따라 각 축산 관련 기관에서는 3월 1일~5월 31일까지 3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중 대규모 농가 소독 예찰상황을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방역기간 중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기상훈련(CPX) 및 시군별 지역방역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 전국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을 적기에 구매해 공급하는 등 지침을 시달하고, 관련 협회 및 대한수의사회 등에는 중국 등 외국 현지 축산농장 경영자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여행 시 농가 방역 준수사항 등을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굳힐 것”

-검역원, 국경검역 강화 대책 추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월) 검역원 대강당에서 구제역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05년도 국경검역 강화 대책 추진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검역원은 구제역 유입위험이 높은 3월~5월까지 3개월을 '구제역 특별국경검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경검역 세부대책 방안으로 공항만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 항만 검역탐지견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농장방문자 해외산업 농업 연수생 관리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소독조 관리 및 밀수 단속 등을 위한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종명 검역원장은 "검역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가축방역 대책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등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5, 장수비결」- '돼지고기' 방영

지난 3월 17일(목) SBS-TV '여자플러스(오전 11:10~11:30)'에서 「2005, 장수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돼지고기 특집이 방송됐다.

이번 방송에서는 일본에서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 최고의 장수마을로 새롭게 급부상한 도시인 '고가네이시'와 우리나라 '제주도' 장수촌 노인들의 특별한 식습관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장수촌 노인들의 돼지고기 먹는 방법과 도쿄도 오버린대학교 대학원 노년학 교수인 '시바타히로시' 박사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농림부, FTA 협상단 출범

농림부는 자유무역지역협정(FTA)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농림부 내 FTA협상단(단장 : 농업통상정책관)을 출범했다.

농림부는 최근 FTA협상 증가에 대응해 차관이 주재하는 FTA전략회의 아래 FTA협상단을 신설하고, FTA협상업무를 수행하던 기존의 통상협력과 이외에 별도의 FTA 협상팀을 신설해 FTA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ASEAN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축사환기, 인터넷 자가진단 해보세요”

-농협, 축사환기(양돈)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최



근 축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축사환기(양돈분야)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양돈농가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한 자가진단 시스템에는 돈사의 환기량 자동 계산 및 환기팬 수량 선정 돈사의 입기규격 및 위치 결정 생산 및 사육 실적 공기 흐름 시뮬레이션 생산비 절감 효율 자동 취합 및 분석 농장의 환경 종합 분석 환기 컨설팅 관련 동영상 제공 환기 컨설턴트 관련자료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인터넷 접속방법은 축사환기(양돈)자가진단 시스템(<http://fan.nonghyup.com>)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축산사이버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를 접속후 자가진단 코너를 클릭한뒤 회원가입을 하고 진단정보를 입력하면 환기진단, 시설진단, 사육진단, 전문가진단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인터넷 축사환기(양돈)자가진단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연간이유두수 증가, 사료효율 증대, 약품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원, '퀴즈풀이 가축방역 사이버 홍보' 행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에서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3월~5월간 구제역 청정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풀이 가축방역 사이버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코자 하는 농가 등은 우선 검역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vrqs.go.kr>)에 접속한 후 이벤트 팝업창을 통하여 구제역 예방 관련 퀴즈(6문항)를 푼 후 응모하면 매월 10명씩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농산물상품권(5만원권)을 지급한다.

서울시 하루 평균 돼지 1만 917마리 소비

2004년 서울시 하루 평균 고기 소비는 돼지 1만917마리, 소 990마리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03년 12월 기준으로 토지, 인구, 노동 등 20개 분야의 통계를 취합한 '2004 서울통계연보'를 지난 3월 8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하루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만917마리로 '93년 7천528마리, '95년 6천886마리, '99년 9천816마리, 2000년 6천578마리, 2001년 1만487마리, 2002년 9천635마리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소고기 소비량은 '93년 1천48마리, '95년 1천248마리, '99년 1천797마리, 2000년 1천457마리, 2001년 1천127마리, 2002년 1천218마리,

2003년 990마리로 감소했다.

수도권 '제주 돼지고기' 인증 제 도입키로

제주도는 최근 서울 등 일부 돼지고기 판매업소에서 다른 지방산이나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돼지고기 판매업소가 진짜 제주산을 쓰는지 확인해주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FCG(Fresh Clean Green)' 마크가 붙은 식당이나 정육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축산분뇨 처리 박차

제주도는 축산분뇨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42억여원을 투입해 북제주군 8개소, 남제주군 10개소, 서귀포시 5개소, 제주시 4개소 등 제주도 80개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제주시와 북제주군 등 4개 시 군 43개소에 1기당 2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우리 협회 시 군 지부와 농협, 축협 등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 남제주군 각 1개소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생물비료화 공동시설을 갖춰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생물비료를 생산해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북 남제주군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도 완공할 방침이다.

홍성 서산, 가축전염병 예방 지원사업 실시

충남 홍성군은 돼지 일본뇌염 등 해충을 매개로 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을 펼쳐 축산 밀집지역에 돼지, 소,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해충퇴치기를 지원한다.

또한 서산시는 황사 등의 영향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오는 5월 말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따라서 시는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방역장비를 배치하고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설립

농림부는 지난 3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제연구원(대표 정찬길)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축산경영 및 경제, 유통, 환경, 위생, 브랜드 등 각종 축산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실시해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국축산경영학회, 「2004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축산경영학회(학회장 권옥)는 지난 2월 21일(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4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건국대 류제창 교수가 참석해 '자연순환형 농축산 영농시스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2005년 한국축산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박사는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전북대 유찬주 교수는 '양돈농가의 경영자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제 발표를 통해 농업경영자 능력이 경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전남대 조광호 교수는 '동물복지축산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유기축산은 동물복지생산체계를 전제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 농산식품 '안전'이 제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소장 이한기)는 지난 2월 18일에 소비자들의 농산식품에 대한 주된 관심사항이 '안전성'이라고 분석했다.

농진청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및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농축산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농산식품에 대한 주된 관심 사항은 안전성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품질 맛 외관, 가격이 12.7%, 영양가 12.3%로 뒤를 이었다.

특히 품목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채소와 과실류가 84.7%로 가장 높았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82.7%~83.8%, 어패류

82.6% 등을 차지해 육류에 대한 불안감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식품안전성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이 78.4%로 '필요하지 않다(6.9%)'는 소비자보다 눈에 띄게 많았으며, 식품의 이력정보 표시에 대한 욕구도 78.3%로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진청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의한 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안전농산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웹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연령별로 40대 76.9%, 30대 74.3%, 50대 62.4%, 20대 58.4%, 60대 이상 48.4%로 나타났으며, 농산식품 선택시 고려하는 질병으로는 암이 73.3%, 비만 68.5%, 당뇨병 63.4%, 심장질환 61.6%, 골다공증 59%순 이었다.

1월 양돈사료량 44만2천톤

1월 양돈사료량은 44만2천톤으로 전월 49만6천톤 대비 10.8% 감소하고, '04년 1월 45만9천톤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 또한 올해 3월 873만두로 예상되면서 '03년 12월 923만1천두, '04년 6월 901만7천두, '04년 12월 890만8천두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농협과 사료협회는 2월중 배합사료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월 양돈사료 44만2천455톤 중 젓먹이돼지용은 2만3천778

톤으로 전월 2만3천256톤 대비 2.2% 증가했으며, 비육돈용은 8천82톤으로 전월 7천788톤 대비 3.8%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젓뎨돼지용은 11만1천72톤으로 전월대비 9.2% 감소하고, 육성돈전기용도 12만6천459톤으로 전월대비 13.2% 감소했다.

축단협, 남호경 회장 연임



남호경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남호경 현 회장(전국한우협회장)을 재추대하고, 2005년 축단협 운영과 관련 각 단체별 중점현안을 취합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축단협 부회장에도 최영열 양돈협회장과 박순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이 재추대되었다.

한국사료협회, 신임 회장에 김정호씨



김정호 회장

(사)한국사료협회는 2월 28일 개최된 2005년도 정기총회에서 김정호 전 농림부차관을 사료협회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정호 신임 회장은 1972년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제1회 행정고시 합격 1981년 미국 오리건

대학교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를 거치고, 1989년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과장 1995년 8월 농림수산부 주제네바대사관 농무관 1998년 7월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1999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림해양수산비서관 2001년 4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2003년 3월 농림부 차관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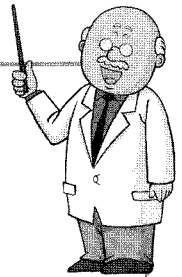
금자축산, 베트남에 증돈 970두 수출

금자축산(대표 정종기, 경남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소재)이 베트남에 증돈 970두(95만3천불)를 수출했다.

이에 금자축산은 그 동안 선진 양돈국을 견학하면서 한국형 우량 증돈개량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

다고 밝히고, 이번 증돈 수출이 수입에 의존한 국내 증돈개량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돈 선진국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1년에 금자축산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총 130두(8만5천불)를 수출한 바 있다. **양돈**

돼지고기 상식



돼지고기, 단백질과 비타민의 보고

돼지고기에 풍부한 단백질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여 뇌졸중 등의 성인병을 예방

❄ 우리 몸에 단백질은 얼마나 중요한가?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 중의 여성은 특히 질이 좋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또한 단백질은 혈관이 굳어서 발생하는 뇌졸중 등의 성인병을 방지하고, 감기 등에 자주 걸려 활동에 지장이 있는 중년 남성이나 노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 돼지고기에 풍부한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다.

우리들이 먹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되는데, 체단백질을 합성할 때 필수아미노산의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돼지고기에 풍부한 필수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구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비타민은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영양소이다.

비타민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섭취해야 할 양이 적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고 파괴되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 돼지고기에 풍부한 비타민 B₁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

비타민 B₁이 인체에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어 쉽게 피곤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각기병이나 신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B₁이 타 육류에 비해 10나 더 들어있는 돼지고기는 이러한 체증상을 해결해주는 좋은 영양 공급원이다.